광한루원의 경관변화양상에 관한 고찰^{*}

이원호 · 김동현 · 김재웅 · 안혜인 · 김대열 · 조운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A Study on the aspect of landscape change for Gwanghalluwon Garden

Lee, Won-Ho · Kim, Dong-Hyun · Kim, Jae-Ung · Ahn, Hye-In · Kim, Dae-Yeol · Cho, Un-Ye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that Gwanghalluwon for aspects of landscape change in terms of construction garden(樓園). Transformation focused on the spatial structure is divided into four periods based on literature. And reflect of landscape elements in defunct or unattributable records from tale and nov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beginning of Gwanghallu pavilion(廣寒樓) was the composition of the Gwangtongnu Pavilion(廣通樓). The pavilion is located amid beautiful scenery such as the close-range view of a small stream, and distant view Jiri Mountain. Analysis of literature shows that Gwanghallu pavilion was in succession to Gwangtongnu Pavilion's landscape.

Secondly, Gwanghallu(廣寒樓) pavilion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 of the garden since 1582. Built the Samsinsan(三神山), Construct Lake and bridge that represents the galaxy for realization of utopia reflect in Taoist ideology.

Thirdly, Gwanghalluwon garden was recovered when from Jeong-yu-jae-ran(丁酉再亂) to the Japanese Ruling Era. It took Gwanghalluwon garden a long while to recover from original form. According to records, Gwanghalluwon garden is still being likened to the landscape of fairyland by inheriting landscape in the previous of Jeong-yu-jae-ran(丁酉再亂).

Fourth, By the modern times, Gwanghalluwon Garden has personality of tourist attractions. Until now, the area of the Gwanghalluwon garden has been expended during the processes of three times.

Fifth, Aspect of landscape change of Gwanghalluwon is wide-spreading mainly Gwanghallu pavilion. But elements of external expansion in garden by introduced into the facility irrelevant to the authenticity of the garden.

Sixth, Comprehension the cultural landscape of the garden are limited by deficient records. But, the main elements in the Gwanghalluwon garden are commonly appeared on imaginary environment within a tale and a novel. In addition, culture of garden at the time was depicted in tale and novel. In this sense, cultural landscape in garden was able to estimate through imaginary environment within novel.

Key Words: Aspect of transition, Imaginary environment(想像環境), Landscape analysis, Nuwon(樓園), Regressive method(逆行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누원(樓園) 조성의 관점에서 광한루원의 경관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공간구조 중심의 변화과정을 4시기의 공간변화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현존하지 않거나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관요소를 설화나 소설에서 나타나는 상상환경에 도입하여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한루가 처음으로 조성되는 시기는 광한루(廣寒樓)의 전신인 광통루(廣通樓)가 조성되는 기간으로, 작은 개울을 근경으로 그 일대의 지리산을 원경으로 하는 등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헌을 통해 광한루는 광통루의

^{*}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4 명승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적용연구'(과제번호: NRICH-1405-A18F-1)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Kim, Dong-H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aejeon 302-834, South Korea. Tel.: +82-42-610-7628, E-mail: briton2409@naver.com

경관을 그대로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광한루가 원(園)의 성격을 가지는 시기는 1582년 이후로, 신선사상이 반영된 이상세계 구현을 위하여 삼신산을 조성하고,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와 오작교를 조성하였다.

셋째, 광한루원이 복구되는 시기는 정유재란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기간으로 광한루원의 원형을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당시 기록에서 나타나는 광한루원은 정유재란 이전의 경관을 계승하여 여전히 선경의 모습에 비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근대에 이르러 광한루는 춘향전의 배경으로 관광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세 차례에 걸쳐 권역이 확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섯째, 광한루원의 각 시기별 변화양상은 광한루를 중심으로 외부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외부로 확장되는 요소는 관아누각인 광한루원의 진정성과는 무관한 시설이 다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광한루원 일원의 주요 요소들이 설화와 소설 속에 내재된 상상환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당시의 정원문화가 묘사되고 있는 것을 통해 문헌상의 한계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던 광한루원의 문화경관을 추정할 수 있었다.

주제어: 경관분석, 누원(樓園), 변화양상, 상상환경(想像環境), 역행법(逆行法)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광한루원은 조선 초기 황희를 비롯하여 송강 정철(鄭澈, 1536-1593),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사촌 신희(申欽, 1566-1628),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아서 시문을 남겼던 명소이자,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 춘향전의 무대가 된 곳으로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훈, 2008; 유육례, 2011; 박연호, 2005). 그러나 현재의 광한루는 월매집, 전통놀이시설 등 원내 다수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과거의 광한루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 경관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경관이나 지역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에 이질적인 변화가 야기될 경우 그 변화는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경관 전체가 구조적으로 변하게 되므로(나카무라 카즈오 등, 2001), 현 시점의 광한루가 어떠한 변화양상을 거쳐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한루가 조성된 이후 오늘날의 광한루원까지의 변화양상은 문헌이나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이는 건조물이나 호수 및 오작교 등 특징적인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다. 본래 누(樓)·정(亭)의 기능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조망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 경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나 현재 변질된 광한루원 주변 경관은 과거의 기록에서도 그 원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상환경이 내재된 문화경관은 풍토 여건과 함께 정신문화적 배경으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심우경,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광한루원은 본래 광한루의 성격과 달리 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

우 제한적인 시점에서 소설이나 설화에 나타나는 광한루원의 상상환경이 내재된 문화경관을 도출하여 당시의 상징적 요소를 추측하는 과정은 정원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문화적 상관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기초적 단계라 할 수 있다(이원호 외, 2006).

광한루원 관련 연구로는 주로 광한루 내의 편액이나 누정제영시 등의 국한문학적 연구(정훈, 2008; 박연호, 2005; 유육례, 2011; 류준경, 2003)가 주로 이루어 졌으며, 건축학 측면에서 강봉진(1971), 김민주(2011)은 관아누각으로의 광한루를 실측하고 건축특성을 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광한루의 역사는 건조물이 가지는 역사성에 국한되지 않고 누원(樓園) 조성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문화재청,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조경 및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김용만, 1982; 안득수, 2011; 심우경 등, 2010)는 점경물 또는 일부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한루원 전역에 걸친 연구로는 광한루원의 주요시기를 분류하고 원내의 수목, 구조물, 공간구성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을 제시(백종철과 김학범, 2011)한 바 있으나, 문헌고찰을 통한 분석은 광한루원 내 주요 건조물 및 시설의 조성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존재 유무 외에 광한루원 외부의 경관요소나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는 당시의 모습을 추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텍스트를 통해 공간구성요소의 상대적 관계성과 입지 등 일련의 연속된 지리적 사실¹⁾을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홍금수,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광한루원의 공간구조 중심의 경관변화과정을 추적하여 시기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과거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는 광한루원 일원의 주변 경관을 소설을 통해 문화경관을 도출하고 그 규모나 위치를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하고 지도에 표기함으로써 광한루원의 경관양상 및 변화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광한루원은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69,795㎡로,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가에 월궁을(月宮)을 표현한 광한루와 지상의 낙원인 삼신산(三神山)을 표현한 3개의 섬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누원(樓園)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상관과 신선사상을 정원에 표현하는 조선시대 정원유적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경승지이다(문화재청, 2008). 광한루원은 보물 제281호로 지정된 광한루와 함께 명승 제33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그림 1. 연구대상지 현황

a: 다음지도에 필자표기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광한루원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경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관련 고문헌과 기사, 사진 등을 분석하여 광한루의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구분하고 도식화하였다. 도식화를 통한 경관의 추적은 현재의 문화 경관을 분석해서 과거의 각 시대에 성립하였던 경관 부분을 식별해

내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후세에 첨가된 경관 부분에 대한 환원과 소거를 계속함으로써, 목표인 과거의 문화경관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²⁾ 기록을 통한 도식화의 중점은 텍스트 및 단순 연혁 위주의 기존연구와 달리 시각적으로 당시의 경관의 변화양상을 파악함에 있어 용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시계열적으로 재분류하여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일련의 과정은 관련 문헌을 토대로 주요 건조물과의 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사료에만 의존하던 기존 연구와 달리 공간의 위계질서, 건조물간의 공간감 및 영역성, 관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각 시기별 도각은 평면 모식도와 입면도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입면도의 기준선은 광한루원의 건조물이 하나의 축선에서 최대한 중복이 없으며, 광한루의 향과 평행선상에서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평면의 모식도는 과거의 광한루원이 경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문헌상의 한계로 인하여 현재의 광한루원의 경계에 따라 작성되었다.

또한 문헌이나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는 광한루원 일원의 주변 경관은 수산 조항(趙恒, 생몰년도 미상)의 광한루기(廣寒樓記) 및 춘향전³⁾과 현존하는 경관요소에 관련된 설화를 통해 상상환경(想像環境)에서 나타나는 문화경관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도출된 요소는 고지도 및 현존하는 요소를 추적하였으며, 고지도에 나타나지만 현존하지 않는 요소는 문헌이나 과거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규모 및 위치에 따라 그 영역을 추정하여 지도에 표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광한루원 공간구성 변화의 시기설정

표 1. 분석에 활용한 문헌 및 도상자료

구분	문헌	저자, 간행처	제작연대	소장처
문헌	나부집(樞夫集) 광한루기(廣寒樓記)	황수신(黃守身, 1407-1498)	1459	국립중앙도서관
	광한루기(廣寒樓記)	신홍(申欽, 1566-1628)	미상	개인소장
	광한루기(廣寒樓記)	조항(趙恒, 미상)	19세기	국립중앙도서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	1530	규장각 도서
	남원지(南原誌)	남원시	1949	남원시
	증보남원지(增補南原志)	남원시	1972	남원시
	용성지(龍城誌)	남원시	1725	남원시
	임하필기(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1872	규장각 도서
	동리집(東里集)	이은상(李殷相, 1617-1678)	1702	규장각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이두환(李斗璜, 1858-1916)	1895	개인소장
도상자료	용성속지(龍城續誌)	남원시	1923	남원시
	1872년 지방지도 남원읍지도(地方 南原郡 地圖)	이하응(李晙應, 1820-1898)	1872	규장각 도서
	호남읍지(湖南邑誌) 전라북도 각군읍지(全羅北道各郡邑誌)	-	1895	규장각 도서

광한루는 조선 초기 광통루에서 현재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변화한 장소로서, 관련 문헌이나 기사 신문 등은 당시의 경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광한루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성의 변화는 문헌을 통하여 그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 1기는 광한루의 초기 형태가 조성된 시기로, 광한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를 조성 초기의 경관으로 추정하고, 제 2기는 광한루가 원(園)의 성격을 가지는 1434년부터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시기를 경관변화시기의 준거로 삼았다. 제 3기의 설정은 소실되기 이전의 광한루원으로 회복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제 4기는 최근의 경관변화 시기로 20세기 관아누각의 성격을 가지던 광한루원에 다수의 시설이 조성되어 그 원형이 변질되어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표 2 참조).

표 2. 광한루원의 연혁

구분	연도	대상	내용
I 기	1419	광통루	광한루 이전의 건조물
	1434	광한루	광한루 신건
	1437	광한루	광한루 단청
II 기	1582	광한루	광한루 개축
		삼신도	봉래도, 방장도, 영주도
		상한사	견우가 은하수를 건널 때 타는 뗏목
		영주각	영주각 신축
		지기석	직녀가 베를 짤 때 베틀을 고였던 돌
		호수	호수 조성
	1584	오작교	오작교 신설
III 기	1597	광한루원	정유재란으로 인한 소실
	1599	누각	광한루 자리에 누각 조성
	1626	광한루	광한루 중건
	1795	광한루	광한루 익루 증축
		영주각	삼신산 영주각 중수
	1855	광한루	광한루, 영주각 중수
	1879	광한루	광한루 월랑 증축
	1925	광한루	누 동쪽 밑에 직실(直室) 마련
IV 기	1931	춘향사	춘향사 건립
	1963	광한루원	부지 확장(2179㎡ 매입, 총 22,013㎡)
		호수	호수 둘레에 철책 설치
		방장정	오작교 옆의 방장정에 육모정 신축
	1965	영주각	영주각 단청
	1970	광한루원	영역 확장(22,013㎡→34,648㎡)
		광한루원	오작교 옆 담장 철거 및 이축
		완월정	수중누각 완월정 신축 및 연지조성
		월매집	월매집 신축
		국악원	국악원 신축
		남문	정문 신축
	1983	광한루원	경역 확장(34,648㎡→69,795㎡)
		누원정비, 사적 지정	
	1990	월매집	담장 설치, 모정 신축
	1994	광한루원	광한루원 보수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998	관리소	광한루원 관리사무소 신축

기존에 광한루원의 연혁을 다룬 연구로는 광한루 실측조사 보고서(문화재청, 2000)와 정훈(2008), 백종철과 김학범(2011)

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중 광한루 실측조사보고서는 광한루의 변화를 조선 전기와 후기, 일제강점기 이후 총 세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누원조성의 관점에서 시기를 분류한 결과는 광한루라는 누각이 누원(樓園)의 성격을 가지는 시기를 초기로 설정하고 20세기를 전후로 구분하여 세가지의 시기로 분류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에 이르러 관아누각의 성격이 광한지의 모습을 보이는 시기를 통합적으로 분류하여 그 변화양상을 하나의 특징으로 유형화하는데 무리가 따르며, 누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광한루가 건조물에서 원(園)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하나의 시기로 보기에는 그 경관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로 같은 특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정훈(2008)의 연구에서는 광한루가 언급된 문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분류하거나 당시의 경관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한루원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기록을 통해 건조물이나 주요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그 변화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변화 요인이나 일련의 사건 및 당시의 경관양상을 파악한 결과, 광한루가 원(園)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시기를 별도로 분류하고, 근대에 이르러 원내에 다수의 시설이 유입되어 장소의 성격 및 경관이 변모되는 시기는 기존 문헌 외에 신문이나 사진, 엽서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양상에 천착하였다. 이에 따른 시기의 분류는 백종철(20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2. 광한루원의 공간변화과정

1) 광한루의 신건(新建)

광한루의 전신인 광통루는 1419년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된 시기에 축조된 누각으로 황수신의 『광한루기(廣寒樓記, 1458)』에는 광통루가 위치한 입지에 대하여 언급되어있다.

“고향의 치소(治所)의 남쪽으로 2리 떨어진 곳은 지세가 높고 평평하게 넓은데, 멀리로는 사이사이 속새가 있으며 산 둘레에는 하늘에 맞닿고 있어 흰구름이 반쯤 걸려있고, 앞에는 골짜기 물이 명주베를 펼쳐놓은 것처럼 흐르고, 그 흐르는 물에서 섬핀(纖鱗)을 보노라니 기이 아름다운 곳이라 부를 만하다. 이곳에 조그마한 누각(樓閣)을 세워 일컫기를 광통(廣通)이라 하였다.”

『광한루기(廣寒樓記, 1458)』

광통루는 일대의 지형이 완만하고 요철을 근간으로 하는 작은 단일 누각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한루기와 함께, 황희의 시문⁴⁾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경관을 살펴보면, 광통루가 초당(草堂)으로 대별되는 작은 누각의 형태이지만 전면의 계류와 주위에 흰 배꽃의 향기와 푸른 버들이 움을 트려한다는 등 당시 광통루의 수려한 경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광한루는 황희의 귀경 후 퇴락된 광통루가 헐리고, 1434년 당시 남원부사 민여공이 새로운 누각을 조성하였으며, 1444년(세종 26년) 도순찰사 정인지(鄭麟趾, 1396-1478)가 달나라 미인 항아가 사는 월궁 속의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를 본 따 '광한루(廣寒樓)'라 명명한데에서 유래되었다(박영순, 2009).

『신증동국여지승람』 「남원도호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황수신(黃守身)의 기문에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한 광통루에 다시 새 누각을 세웠다는 기록⁵⁾이 있어, 광한루는 과거 광통루의 경관을 그대로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광한루의 경계 밖 서남측에는 울림(栗林)이 조성되어 있음을 『남원지(南原誌)』와 황수신의 『광한루기(廣寒樓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444년(세종 26년) 당시 황무지였던 장소에 남원부사 유지례(柳之禮)가 유실수인 밤나무를 심어 숲이 된 것을 시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울림(栗林)은 임진왜란 당시 김덕령(金德齡, 1567-1596) 의병장에 의해 신병조련소로 사용되면서 공지가 되었고 장이 들어서면서 이를 울장(栗場)이라 하였다.

요천의 서남쪽에는 넓은 들판이 있어 유군(柳君)이 밤나무 종자를 수천 뿌리 심었는데, 대대로 주어져 쓰이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울창하게 우거진 초목이 펼쳐져 장막처럼 둘러쳐 있고, 삼라만상(森羅萬象)이 한눈에 펼쳐지니 이것을 일컬어 울수(栗藪)라 한다. 『광한루기(廣寒樓記, 1458)』

2) 광한루원(廣寒樓園)의 조성(造成)

광한루 일대를 원(園)으로 조성한 시기는 전라감사 정철(1536-1593)과 남원부사 장의국의 부임기간으로, 정철의 시문⁶⁾에서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銀河)'를 조성하고 호수에 비친 달을 감상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증보남원지(增補南原誌, 1972)』에 따르면 남원부사 장의국이 광한루를 중수하고 요천강을 끌어다가 호수를 마련하고, 오작교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조성 당시 광한루는 누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주변이 선계(仙境)에 비유되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어, 요천을 끌어다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와 오작교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강기욱, 2014).

“선조 15년 임오(1582년)에 새로 부임한 부사 장의국은 광한루의 면모를 일신시켜 더욱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는 먼저 동쪽으로부터 요천강(蓼川江) 맑은 물을 끌어다가 천상의 은하(銀河)를 상징한 호수(湖水)를 마련하였고, 호중(湖中)에는 지상의 낙원(樂園)을 상징하는 연꽃을 심었으며, 하늘의 은하수에 가로막힌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일년일도(一年一度) 칠월 칠석(七月七夕)에 건너가 서로 만남을 상징하는 오작교를 호수 위에 가설하되...〈후략〉”

증보남원지(增補南原誌, 197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삼신산의 조영은 호수와 오작교와 함께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용성지(龍城誌, 1725)』의 '누정(樓亭)'에는 오작교, 지기석, 봉래도, 방장도, 영주도, 상한사 등의 시설은 당시 전라감사인 정철이 확장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으며, 예전에는 누앞에 실개울이 있었는데 이를 크게 넓혀 은하수 모양으로 호수를 만들고 호숫가에 돌을 두른 다음 섬 3개를 만들고 섬에는 각각 녹죽을 심거나 백일홍을 심거나 연정을 세워 호수 가운데 수많은 꽃이 만발하게 하였다고 한다⁷⁾.

이러한 광한루원의 조성은 기존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누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정원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정유재란(1597, 선조 30년)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3) 광한루원(廣寒樓園)의 중건(重建)

1598년 정유재란 이후 남원의 복구와 재건의 진행과 함께 광한루 일원에는 1599년 당시 남원부사 원신(元愼)에 의하여 작은 누각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 누각은 광한루의 옛 터에 조성된 누각일 뿐, 형태나 규모의 면에서 과거 광한루에 미치지 못하였고 본격적인 광한루의 중건은 1625년 부사 신감(申鑑)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 1872)』에서도 기록되어 있어 광한루의 조성 초기에서부터 광한루의 중건까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⁸⁾.

현존하는 광한루의 모습은 이 시기의 광한루에서 기원한다. 신희(申欽, 1566-1628)의 『광한루기(廣寒樓記)』에는 광한루원 일대의 경관을 묘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방장산(지리산)에서 발원한 물은 요천이 되고 다시 꺾어져서 광한루 앞에 와서는 하나의 호수로 변하여 깊고 맑기가 마치 하늘의 은하수와 같다.' 하였으며, 호수 밖에는 넓은 평야, 긴 모래밭, 낭떠러지, 기이한 바위, 도서, 화죽이 있다 하여 그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⁹⁾. 또한 동리 이은상(李殷相, 1617~1678)의 7언절구 시문¹⁰⁾에서도 광한루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며 노니는 모습으로 광한루를 천상백옥루에 비유하고, 폐배나 은하수, 지기석을 두고 광한루원이 곧 신선이 사는 곳으로 방장산 신선의 자취를 여기에서 구하겠다는 내용을 보아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광한루를 선경에 빗대어 예찬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1894)』에는 죽림, 영주각, 오작교의 경관을 선경(仙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당시의 경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¹¹⁾.

한편, 『용성속지(龍城續誌, 1923)』에는 1795년(정조 19년) 남원부사 이만길(李萬吉)이 영주각을 중수하고, 편액을 써서 걸었다는 기록이 나타나며, 1879년(고종 16년)에는 광한루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부사 이용준이 수리방안으로 월랑을 조성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광한루는 누동쪽에 직실을 마련하고, 남원재판소와 현병본전대(감옥)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용성속지 발간 당시인 1923년에는 재판소로

그림 2. 일제강점기의 광한루

- a: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직실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b: 광한루와 인접하여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c: 영주각 뒤편으로 목책이 설치되어 있다.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그림 2-a 참조).

광한루원의 경계는 텍스트 위주의 광한루의 경관을 읊었던 문헌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남원부의 남측 관문으로서 개방된 형태로 위치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그 실효적 권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광한루원이 증건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사진이나 엽서 등이 남아 있어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그림 2-b, c 참조). 당시에 나타나는 기록에서 광한루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주각이나 삼신산, 오작교 등이 여전히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경내 영역의 축소는 개연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대 광한루의 권역과 동일하거나 약간 작은 형태로 광한루가 증건된 이후 원내의 정원요소를 포함하는 규모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4) 광한루원(廣寒樓園)의 확장(擴張)

근대에 이르러 광한루는 춘향전의 배경으로 관광지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1931년 보도된 신문기사¹²⁾에 의하면 광한루의 중수와 함께 춘향각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광한루원은 광한루를 중심으로, 호수 및 오작교, 영주각이 나타내는 선경을 전우직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잡지에 수록된 내용에는

南原의 廣寒樓는 春香 때문에, 晉州의 蠡石樓는 論介 때문에 유명하여졌거니와 平壤의 浮碧樓는 무엇 때문에 저러듯 일흠을 날리는고...(후략)...(삼천리, 1932)

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라는 내용과 같이 신선사상으로 대별되는 광한루원의 성격이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가 전해져오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한루와 인접한 호수의 남측은 현재의 권역이 아닌, 상술하였던 울림(栗林)이 공지가 된 후 들어선 울장(栗場)으로 민가와 시장이 조성되어 있음을 다음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南으로 호수 건너편은 보기 흉한 집들이 가득차 있고 湖畔 바로 곁에는 春香館이라는 바락크로 지은 이층 요리점이 우뚝 서 있다. 不快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거기서 놀랑패들이 곤드레만드레 지꺼리고 떠들고 소리하고 통탕그리고 싸흠할 것을 생각하면 이 廣寒樓의 雅趣를 무척 죽일 것이다(삼천리, 1941).

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광한루 실측보고서(문화재청, 2009)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1963년, 1970년, 1983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광한루의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광한루원 영역의 확장

시기	광한루원 권역
1963	
1970	
1983	

광한루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2009)에 필자 재구성

『광한루예찬시선(1999)』에는 1963년부터 시작된 광한루원 확장 정비계획에 따라 당시 남원군수 이화익의 창안으로 방장정을 건축하였으며, 달을 즐기는 정자라는 뜻을 가진 완월정은 1971년에 신축된 수중누각으로 1963년 채기묵 남원군수의 재임 이후부터 연차 계획을 세워 경내를 확장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증설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현재의 정문(청허부)의 위치에는 1970년도 당시에 전북에서 제일 큰 규모의 남원시장(南原市場)과 우시장(牛市場)이 있었으나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되자 남원군수 채봉채가 매입하여 그 자리에 정문을 세웠으며 1970년 당시 완월정의 주변에는 정미소가 있었고 후에 이를 철거하여 권역을 확장하였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그림 3 참조).

그림 3. 1970년대 광한루원 (출처: 전라북도도정기록사진)
광한루의 후면에는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민가 및 상가들이 즐비해 있다.

1976년에 보도된 신문기사에 따르면 현재는 선취각으로 이

용되고 있는 국악원, 월매집의 조성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성 당시 술을 팔았다는 기록을 통해 광한루에 인접한 시설들이 이용객들을 위한 공공의 장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최근에 광한루 서남쪽 측향이 그네 뒀던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는 곳 바로 아래 ‘월매집’이 생겨 한잔 술을 팔고 있으며 국악원이 새로 건립됐다.

1976.04.13. 동아일보

이 외에도 초정, 관리사무소 등이 신축되었고, 1983년에 광한루원이 사적 제303호로 지정된 이후, 2008년에는 명승 제 33호로 지정되어 그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5) 공간변화과정의 특성

광한루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시기에 따른 조성 유무 및 변화과정을 공간변화 측면에서 시계열적으로 나열하고 도시화한 결과(표 4 참조) 광한루는 정유재란 당시 화재에 의해 소실된 이후 1625년 증건한 광한루의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1931년 이후의 모습은 근대에 이르러 조성된 것으로 기존의 광한루원에 총 3차례에 걸쳐 부가적으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한루원은 광한루를 중심으로 외부로 확장되는 공간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이를 진정한 전승 여부를 기준으로 공간의 성격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대상지 내 면적의 절반을 상회하는 공간이 기존의 광한루원에 추가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관아누각의 성격을 가지는 광한루와는 무관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표 4. 시기별 변화에 따른 경관구성요소

경관 구성 요소	시기								
	1기(1419-1444)		2기(1582-1597)		3기(1699-1925)		4기(1931-현재)		
	광통루 조성	광한루 조성	광한루원 조성	정유재란	광한루 중수	영주각 중수	춘향각 조성	완월정 조성	선취각 조성
광통루	○	-	-	-	-	-	-	-	-
광한루	-	○	○	-	◎	◎	◎	◎	◎
영주각	-	-	○	-	-	○	○	○	○
방장정	-	-	-	-	-	-	○	○	○
완월정	-	-	-	-	-	-	-	○	○
오작교	-	-	○	○	○	○	○	○	○
춘향각	-	-	-	-	-	-	○	○	○
월매집	-	-	-	-	-	-	-	○	○
춘향관	-	-	-	-	-	-	-	○	○
선취각	-	-	-	-	-	-	-	○	◎
초당	-	-	-	-	-	-	-	-	○
삼신산	-	-	○	○	○	○	○	○	○
호수	-	-	○	○	○	○	○	○	○
울림	○	○	○	◎	◎	◎	◎	-	-
정문	-	-	-	-	-	-	-	○	○
북문	-	-	-	-	-	○	○	○	○

○ : 해당 시기에 존재하는 요소, ◎ : 초기의 형태에서 변형된 요소

그림 4. 광한루원 내 건물의 성격 분류

흰색 선은 관아·각의 성격을 지니는 건조물과 영역대, 붉은색 선은 기타 다른 성격을 지니는 건조물

3. 상상환경으로서의 광한루의 문화경관

조선시대 남원부는 장방형의 읍성을 중심으로 북문 밖의 향교(鄕校)와 교룡산성(蛟龍山城), 서문 밖의 관왕묘(關王廟), 동문 밖의 선원사(禪院寺), 남문 밖에 광한루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장림(長林)에 인접한 선원사-관왕묘-광한루-교룡산성이 남원부의 동서남북을 둘러싸는 요소로, 그 가운데 광한루는 울장(栗場)이 있어 도심 내 위치한 명소가 할 수 있다. 이는 춘향전의 방자와 이도령의 대화에서 남원성의 주변 경승지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 광한루의 입지와 당시의 빼어난 경치(景處)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광한루기 및 춘향전에서 나타나는 장소들이 실제 남원의 옛 지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설에서 나타나는 상상환경이 당시의 문화경관을 반영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표 5 참조).

동문(東門)밖 나가오면 장임습 천은사(禪院寺) 조쌘고, 서문(西門)밖 나가오면 관왕묘(關王廟)난 천고영웅(千古英雄) 엄(嚴)한 위풍(威風) 어제 오늘 갓쌘고, 남문(南門)밖 나가오면 광한루(廣寒樓) 오작교(烏鵲橋) 영주각(瀛州閣) 좇쌘고, 북문(北門)밖 나가오면 청천삭출(靑天削出) 금부릉(金芙蓉) 기벽(奇癖)하야 웃득 셔스니 기암(奇巖) 등실 교룡산성(蛟龍山城) 좇사오니 처분(處分)티로 가사이다.” 도련임 일은 말삼, “이이 말노 듯셔 광한루(廣寒樓), 오작교(烏鵲橋)가 경기(景概)로다

춘향전

또한 남원읍성의 권역은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성곽 외부의 주요 요소와의 상대적 거리 및 일부 남아있는 남원성의 성곽 유구를 토대로 장방형의 원형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한병옥(1997)의 연구에는 동서남북의 성문을 현재 동문사거리-서문사거리-광한북로사거리-남원역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광한루기에는 이도령이 광한루에 올라 춘향과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춘향이 그네 타던 곳은 광한루의 동쪽 난간에서 조망되는 버드나무 언덕으로 표현되었다. 광한루기 상에서는 명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으나 춘향전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장림(長林)’이라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 춘향이 그네를 타던 버드나무 언덕이 장림(동림 숲)임을 알 수 있다. 장림은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죽향동에 있던 숲으로 남원성 밖 마을 요천강변에 있었으며, 남원부의 기후제가 행해졌던 장소이자 비보림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디지털남원문화대전). 1872년 남원부지도에는 남원성 동문 밖의 선원사(禪院寺) 외곽까지 이어진 십여리에 달하는 기다란 숲으로 상가가 밀집하여 현존하지 않고 있다(그림 5 참조).

표 5.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남원읍성과 주변 주요 지점

비고	남원읍성	선원사(동)	관왕묘(서)	광한루(남)	교룡산성(북)
1872년 남원읍지도					
전라북도 각군읍지

그림 5. 고지도에서 나타난 장림과 현재의 장림 터

a: 규장각한국학연구원

b: 디지털남원문화대전

한편 광한루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로 관아누각의 성격을 지니는 광한루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설 중 광한루기와 춘향전에 나타나는 요소로는 월매집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월매집은 초가 2동으로 조선시대 민가주택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춘향전에 나타나는 월매집은 대문과 중문, 후원이 있는 상류주택의 형태가 나타나고, 연못을 조성하고 석가산을 두었으며, 조선시대 선비의 풍류와 연관된 학을 소나무와 짝을 지어 후원에 두었고(김해경과 소현수, 2012), 조선 시대 귀하게 여겨졌던 파초나 정원수로 쓰였던 오동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수목과 조화류로 가득한 화려한 장소로 표현되었다. 춘향과 월매는 기생이라는 신분으로서 이처럼 화려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마련될 수 없었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월매집의 경관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 나타나는 정원요소가 반영됨으로써 당시의 정원문화가 소설 속 상상환경요소로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문(大門) 중문(中門) 다 지니어 후원(後苑)을 도라다니 연구(年久)한 별초당(別草堂)의 등농(燈籠)을 발케난의 버들가지 느러져 불빛을 가린 모양(模樣) 구실발리 갈공이의 걸인 듯 하고, 우편(右便)의 벽오동(碧梧桐)은 말근 이실리 쭈뚝 썰러져 학(鶴)의 꿈을 늘어난 듯, 좌편(左便)의 셋난 반송(盤松) 광풍(狂風)이 건듯 불면 노룡(老龍)이 굽이닌 듯, 창전(窓前)의 시문 파초(芭蕉) 일난(日暖)초(初) 봉미장(鳳尾長)은 속입이 썩여나고, 슈심여쥬(水心如珠) 어린 연(蓮)꽃 물박기 제우 써서 옥노(玉露)을 밧쳐 있고, 디접 갖던 금부어(金鮒魚)난 어변성룡(魚變成龍)하라고 썩썩마다 물결쳐서 출렁툼뻥 굽실 굽디마다 조롱(嘲弄)하고, 식로 나는 연입은 바들 썩기 버러지고, 금연상봉(巖然三峯) 석가산(石假山)은 칭칭(層層)이 싸여난의, 계하(階下)의 학(鶴) 두름이 사람을 보고 놀리어 두 쪽지를 썩 버리고 진다리로 징검검 짚늑 주루룩 소리하며 제화(桂花) 밧티 삼살기 짓는다. 그 중(中)의 반가울사 못가운디 쌍오리는 손임 오시노라 등등실 썩서 기다리난 모양(模樣)이요...(후략)

춘향전

또한 월매집의 위치가 현재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아래의 광한루기에 나타나는 내용에 의하면 월매집은 대략적으로 현재의 죽향동 주택밀집지역에 해당한다.

이 성의 동남쪽 모퉁이에 매우 변화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이 옥림동이옵고, 그 마을 서북쪽에 질푸른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 바로 춘향의 집입니다.

광한루기

소설작품에서 나타나는 광한루의 상상환경 외에 광한루원 외부에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현존하고는 있으나 그 기록이 확인된 바 없으며, 설화로만 전해져오는 요소로 광한루원 동측 요천의 건너편의 승월대(昇月臺)라 쓰여있는 각자와 위편의 수임정(水臨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지역 신문기사(한국문화신문 열레빗 2013년 6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수임정은 현존하지 않으나 본래의 정자 대신 2012년에 새로 정자를 조성하고 정명(亭名)을 수임정이라 하여 그 모습을 계승하고 있다. 승월대(昇月臺)는 ‘달에 오르는 누대’라는 뜻이며 팔월 한가위 둥근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면 하늘의 선녀들이 광한루원 앞 요천변에 내려와 비파를 타며 춤과 노래로 밤새 노니다가 새벽닭이 울 때 이곳 승월대에서 금빛 달기둥을 타고 달나라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한문화재한지킴이 홈페이지 <http://cafe.cha.go.kr/>). 승월대의 각자는 황희가 새긴 글씨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승월대와 수임정에 관련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승월대는 하계의 인간을 월궁으로 안내하는 첫 번째 관문이며, 이곳을 통해 비로소 월궁에 오르고 달 속의 궁전인 ‘광한청허부’의 입구로 들어가게 되는 곳이다(혼불문화관 홈페이지 <http://www.honbul.go.kr/>). 이러한 사실은 승월대-요천-청허부-광한루로 전개되는 일련의 지리적 체계가 ‘신선세계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은하수-월궁 입구-월궁’으로 이어지는 신선세계에 대입됨으로써 선계를 상징하는 광한루원의 내재적 의미와 부합하고 있으며 광한루원 내부의 요소뿐만 아니라 외원(外園)에 해당하는 요소까지를 선계와 관련하여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상상환경이 반영된 장치로서 광한루원의 구성 중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림 6. 승월대 각자
자료: 한문화재한지킴이 홈페이지
<http://cafe.cha.go.kr/>

그림 7. 2012년에 조성한 수임정
자료: 한국문화신문열레빗
<http://www.honbul.go.kr/>

한편 남원시에서는 1997년 광한루원과 승월대 사이에 선경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승월대의 이름을 계승하여 승월교(昇月橋)를 조성한 바 있는데, 승월교는 기존의 광한루의 지리적 체계를 이어주는 장치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시의 문화경관이 반영된 상상환경으로서의 설화 및 광한루기와 춘향전 등의 소설을 통해 남원성의 권역 및 광한루를 포함하는 과거 남원의 주요 지표지점을 살펴보고, 승월대와 수임정, 장림과 월매집의 위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8 참조).

그림 8. 상상환경을 통해 나타나는 광한루 주변의 원형 추정
자료: 다음지도 필자 재구성

광한루는 남원읍성에서도 남쪽의 주요 교통로와 시장에 위치한 개방형 누각으로 남원읍성과 광한루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남원읍성 주변의 방위와 관련된 주요 지표지점이 고지도에서도 나타나는 점에서 광한루의 상상환경으로 대별되는 춘향전과 광한루기의 문화경관이 당시의 지형지물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는 소실되었으나 과거 장림의 위치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고, 과거 광한루의 남측이 하나의 장시(場市)로서 당시 남원부 내에 융성하였던 장소라는 기록이 '십 리에 걸친 세상에 거마(車馬)가 끊임없이 왕래하는' 이라는 소설속의 내용에 반영되었던 사실을 통해 오늘날 광한루 남측 담장으로 편입된 공간에 대한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설화에서 나타나는 승월교와 수임정이 신선세계로 통하는 관문의 시작점으로서 광한루원과 맺고 있는 사상의 구현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종합고찰

광한루를 대상으로 문헌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공간변화과정 및 경관특성을 분석한 내용과 상상환경에서 나타나는 광한루원 외부 공간을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광한루의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세분하고 이를 도식화하였다(표 6 참조, 그림 9 참조).

표 6. 광한루원의 시기별 변화 양상 입면 도식도

시기	경관양상
1기 1419 ~ 1444	<div> </div>
2기 1582 ~ 1597	<div> </div>
3기 1699 ~ 1925	<div> </div>
4기 1931 ~ 현재	<div> </div>

□ '는 관아누각의 성격을 가지는 건조물,
□ '는 관아누각의 성격과 무관한 건조물

기록에서 나타난 광한루의 시기별 변화 양상과 상상환경으로 대별되는 소설 속의 문화경관을 비교한 결과, 광한루기와 춘향전에 나타나는 시대적 배경은 소설 내에 나타나는 남원읍성 동측의 관왕묘가 1716년(숙종 42년)에 조성된 점, 광한루·영주각·오작교가 광한루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 쓰인 점에서 정유재란 이후 광한루가 증진된 시기로 판단된다.

당시 광한루원의 모습은 광한루, 영주각, 오작교, 삼신산, 호수, 울장(栗場), 북문으로 구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한루원의 내부 경관은 선경(仙境)에 비유되고, 외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면에는 지리산에서 발원한 요천이 호수가 되어 흐르는 승경으로 남측으로 넓게 뻗은 평야가 조망되며, 저자거리가 형성된 도시속의 원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한루의 경관은 소설에서도 그 모습이 표현¹³⁾되고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전설과 설화의 무대 배경이 구비되어 있었다(표 7 참조).

a. 1기 경관양상 평면 모식도

b. 2기 경관양상 평면 모식도

c. 3기 경관양상 평면 모식도

d. 4기 경관양상 평면모식도

그림 4. 광한루원의 시기별 변화 양상 모식도

표 7. 광한루원 관련 기록과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

구분	광한루기	춘향전	기록	비고
광한루원 내부	광한루	광한루	광한루	○, ◎
	오작교	오작교	오작교	○, ◎
	대숲	삼신산	영주각	○
	호수	호수	호수	○, ◎
광한루원 외부	교룡산성	교룡산성	교룡성	○, ◎
	새정재	-	금계산	○
	지리산	-	방장산	○, ◎
	울장	-	넓은 평야, 올림	○, ◎
	버드나무 언덕	장림	장림	◎
	-	관왕묘	관왕묘	◎
	-	선원사	선원사	◎

○: 신희(申欽)의 광한루기(廣寒樓記),

◎: 고지도(1872년 남원읍지도, 전라북도 각군읍지)

이 외에 나타나는 광한루원의 시설이나 공간구성요소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광한루원의 증건 이후에 추가된 요소로, 당시의 문화경관을 반영한 상상환경요소인 소설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광한루원의 본질적 성격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광한루-삼신산-오작교-호수에 이르는 누원 성격의 공간과 그 남측에 조성된 시설물이 현재 명승이라는 범주 내에 하나의 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설에서 엿볼 수 있는 문화경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대상이지만, 현존하는 광한루원 내의 이질적인 시설 또한 하나의 문화재로 인식되어 관아누각의 정원이라는 성격이 자칫 원형으로 오인(誤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날의 광한루원은 명승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어 오고 있음과 동시에 춘향을 주요 관광 테마로 삼는 관광지로도 활용되어 광한루원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재로서의 광한루원이 춘향전의 배경인 장소성이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광한루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사료의 대부분이 광한루원 내 건조물과 은하수, 호수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외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소설 속에 나타나는 광한루원은 실제의 광한루원의 모습이 일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춘향의 집이 굉장히 화려한 형태로 나타난 점, 경관을 구축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관계가 모호한 점 등은 소설 속의 광한루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허구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오늘날의 광한루원은 과거 관아 누각의 성격을 가지는 광한루의 진정성과 상상환경 속에 나타나는 허구의 광한루 사이의 모호한 형태로 남아 있다. 또한 주변 개발에 따른 광한루의 고립화는 기록에서 나타나는 남원성 내 하나의 관문으로서 개발된 형태의 누각 영역이 점차 왜소화되고 있다.

과거 기록에서 나타나는 관아누각으로서의 광한루, 소설에서 나타나는 상상환경 속의 광한루, 모호한 성격의 현 시점의 광한루 세 가지 측면에서 광한루원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의 광한루원은 어떻게 보존·관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IV. 결론

본 연구는 누원(樓園) 조성의 관점에서 관련 문헌과 기사, 사진 등을 바탕으로 광한루원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광한루가 처음으로 조성되는 시기는 광한루의 전신인 광통루에서 광한루가 조성되는 기간으로, 초당과 전면의 작은 개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정원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로 보이지만,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헌을 통해 광한루는 광통루의 경관을 그대로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광한루가 원(園)의 성격을 가지는 시기는 1582년 이후로, 신선사상이 반영된 이상세계 구현을 위하여 삼신산을 조성하고,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와 오작교를 조성하였다.

셋째, 광한루원이 복구되는 시기는 정유재란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이다. 광한루원의 원형을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당시 기록에서 나타나는 광한루원은 정유재란 이전의 경관을 계승하여 여전히 선경의 모습에 비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근대에 이르러 광한루는 춘향전의 배경으로 관광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세 차례에 걸쳐 권역이 확장됨에 따라 호수가 확장되고, 시설물들이 조성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섯째, 광한루원의 공간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각 시기별 변화양상은 광한루를 중심으로 외부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외부로 확장되는 요소는 광한루원의 진정성과는 무관한 시설이 다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광한루원 일원의 경관을 소설 속에 내재된 상상환경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광한루원 일원의 주요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당시의 정원문화가 묘사되고 있는 것을 통해 문헌상의 한계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던 광한루원의 문화경관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외의 요소는 광한루원의 성격과는 이질적인 시설로 공간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경관을 분석하여 그 속에서 과거에 조성되어 영속적 효과를 가지고 현재에도 역시 살아있는 역사적 요소를 도출하여 차례로 오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가는 하나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선행적 사례로 기존연구에서 문헌을 통해 광한루원이 변화해온 모습을 시문이나 사진, 엽서, 신문기사 등의 시각적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통해 좀 더 면밀한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도식화함으로써 광한루원 본래의 모습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질적 광한루원의 원형과 함께 문헌상의 한계로 기록에서 파악할 수 없는 광한루원 외부 권역을 대상으로 당시의 경관양상을 설화나 소설에서 나타나는 상상환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현시점의 광한루원의 모습이 앞으로 보존·관리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일정 기준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다.

- 주 1) 본 연구에서의 지리적 사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광한루원 내에 위치한 건조물이나 주요 시설물 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영속성을 지닐 수 없는 수목이나 과거 문헌에서 기록되지 않은 광한루원 외부의 권역의 변화로 한정하였다.
- 주 2) 역행법(逆行法)은 현재의 문화경관을 분석해서 과거 각 시대에 성립했던 경관 부분을 식별해내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후세에 첨가된 경관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과거의 문화경관에 도달하는 방법이다(기쿠치 도시오, 1995). 이를 광한루원에 대입해보자면, 오늘날의 광한루원은 과거의 영역과는 달리 주변의 민가를 흡수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원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초기 광통루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변화된 것으로 기록이나 지명을 단서로 과거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요소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존하지 않는 요소로 분류하고 이를 문헌분석을 통해 그 당시의 모습과 변화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와 도식화는 당시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문헌 자료를 근거로 시대순으로 재분류하고 광한루원의 주변과 내부의 변화양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 주 3) 수산 조항의 광한루기는 작가가 19세기 널리 불리우던 춘향가와 춘향전을 읽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끝에 사실적으로 개작한 한문소설이다(성현경, 2001). 춘향전은 상당수의 이본 대부분 춘향과 이도령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상환경으로의 광한루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산 조항의 광한루기는 문학을 산수 혹은 풍수와 결부시켜 논하고 있으며, 사실주의를 근간으로 서술된 이본으로 본 연구의 문화경관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상상환경의 재료로 삼았다.
- 주 4) 청계상(淸溪上) 초당외(草堂外)에 붉은 어이 늦었는고 이화(梨花) 백설향(白雪香)에 유색황금눈(柳色黃金嫩)이로다 만학운(萬壑雲) 촉백성중(蜀魄聲中)에 춘사(春思) 망연(茫然)하더라. 맑은 시냇물 그 위에 초가삼간 여기에 봄철이 찾아오니 눈같이 흰 배꽃은 향기가 싱그럽고 푸른 버들은 누른 빛을 띄어 장차 움이 트려는데 먼산에는 구름이 엉기고 두견새 소리는 처량만 하다.
- 주 5) “부의 남쪽 2리쯤 되는 곳에 지세가 높고 평평하며 넓게 트여 있는데 거기에 작은 누각이 있으니, 그 이름이 광통루(廣通樓)이다.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하니 갑인년에 부사 민공(閔恭)이 다시 새 누각을 세웠고, 정사년에 유지례(柳之禮)가 이어 단청을 더하였다. 갑자년에 정승인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가 광한루로 이름을 고쳤다. 아, 호남의 경치 좋은 곳으로 우리 고을보다 나은 곳이 없고, 내 고장 경치 좋은 곳 중에 광한루보다 나은 곳이 없다.”
출처 : 한국고전종합DB

- 주 6) 淸風明月
恢拓銀河弄明月 은하호수 크게 넓혀 맑은달과 노닐고
栽培鳩竹挹淸風 독 위에 대를 심어 맑은 바람을 들었네
一年南國巡宣化 한해남녘관찰사로 일할적에
只在淸風明月中 청풍명월속에서 지냈네
- 주 7) ‘廣寒樓’條, “[烏鵲橋]石築虹橋四區단于樓下西南, [支機夕]在湖心南邊, [蓬萊島]在湖心綠竹, [方丈島]在湖東邊種百日紅, [瀛州島]在校前湖北上有蓮亭浮橋連岸, [上漢槎]湖中有小亭 名曰上漢槎 古時樓前但水細如帶 監司鄭澈拓而大之 乃作平湖象銀漢也 周以石砌中峙三島 一種綠竹一種百日紅 一爲蓮亭湖中萬種荷花”
- 주 8) 광한루는 남원루(南原樓) 남쪽 2리에 있는데 옛 이름은 광통루(廣通樓)인바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져서 황폐해졌다. 그래서 세종 갑인년(1434, 세종16)에 부사 민공(閔恭)이 다시 고쳐 짓고 정인지(鄭麟趾)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황수신(黃守身)이 그 기문(記文)을 지었다. 그 뒤 선조 정유년(1597, 선조30)의 왜란 때에 불타 버렸는데 기해년(1599, 선조32)에 부사 원신(元愼)이 간략하게 작은 누각을 지었으며 인조 병인년(1626, 인조4)에 부사 신감(申鑑)이 비로소 증건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 1872)』

- 주 9) 西有蛟龍城°南有金溪山°東有方丈山°有水源於方丈°迤邐而下°爲蓼川°折而注樓前°瀦而爲湖°涵泓澄澈°若天漢起箕尾間°南經傳

說°北經龜宿而襟帶之也°湖外有曠野°長沙斷壑°奇岩島嶼花竹°若青城洞裏玄界初開°瓊華石英°互發而交拆°赤水丹丘°愴悅而靡窮也°湖上有橋跨空者四°若嫫女渡河°仙官集役°橫橋一成°碧落平地°名之曰烏鵲°記其似也°統諸勝而樓之°虹梁畫棋°珠箔瑤窓°若五城十樓°紅雲擁之°雖眞仙°亦不得尋也°名以廣寒°

서쪽에는 교룡성(蛟龍城)이 있고, 남쪽에는 금계산(金溪山), 동쪽에는 방장산(方丈山)이 있으며, 물은 방장산에서 발원, 구불구불 멀리 멀리 흘러내려 요천(蓼川)이 되고 다시 꺾어져서 광한루 앞에 와서 는 하나의 호수로 변하여 깊고 맑기 마치 하늘의 은하수가 기성(箕星)·미성(尾星) 사이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부열성(傳說星)을 거치고 북으로는 귀수(龜宿)를 거쳐 깃과 떠처럼 두르고 있는 것과 같다. 호수 밖에는 넓은 평야, 긴 모래밭, 낭떠러지, 기이한 바위 그리고 도서(島嶼)·화죽(花竹)이 있어 흡사 청성산(靑城山)의 동천(洞天) 속과 같다. 숨겨진 그 고장을 처음 개척했을 때는 아름다운 구슬, 수정 같은 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붉은 물 붉은 언덕이 황홀하여 끝이 없었으리라. 호수 위에는 공중에 걸치어 있는 다리가 있는데, 구멍이 네 개이니, 흡사 누녀(嫫女)별이 은하를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신선들이 모여 일하여 그 다리가 놓여지자 하늘이 평지로 변해버린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름을 오작교(烏鵲橋)라고 한 것은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러 승경을 총망라하여 그 이름에다 누대를 세웠는데, 무지개 같은 대들보에 단청한 두공과 진주 발에 구슬 창문은 마치 오성십이루(五城十二樓) 곤륜산 위에 있는 신선이 산다는 곳)를 붉은 구름이 가리우고 있어 비록 진짜 신선이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름을 광한(廣寒)으로 한 것도 아마 그런 뜻이었으리라.

- 주 10) 悅若身登白玉樓° 백옥루에 오른 듯 황홀하고
夕陽移席曲欄頭° 석양녘 주란가로 자리를 옮겼네
溪山領略尊前得° 계산은 술동이 앞에 펼쳐져 있고
景物牢籠筆底收° 경물의 정수는 붓끝으로 그려냈네
機石更從何處問° 지기석을 다시 어느 곳에서 물으며
星槎擬擬昔人遊° 때때는 감히 옛사람 놀던 곳에 견줄까
銀河咫尺塵寰隔° 은하수는 지척이고 속세는 막혔으니
方丈仙蹤向此求° 방장산 신선의 자취는 여기서 구하리라

출처 : 한국고전종합DB

- 주 11) 여러 장관(將官)들과 함께 광한루에 올라가서 누대의 벽을 보니 시(詩)와 사(詞)가 벽에 가득하여 비단으로 수를 놓은 누대라고 할 만하였다. 누대 앞에 호수가 있고, 호수 안에 섬이 있으며 섬 옆에 영주각(瀛州閣)과 오작교(烏鵲橋)가 있어 선경(仙境)으로 의심될 정도였다.
- 주 12) 호남송시의광한루 춘향과 몽룡의 속삭인 넷 종적
전북 남원의 광한루라면 바로 전설의 가인 춘향을 연상하게된다
춘향과 몽룡이가 백년가약을 속삭이든 광한루는 지금 3백8년전
문화를 자랑하던 남방의 유일한 대건물로 당시의 '크라썩'한 정서
가 흐르는 전당이였다 그도 춘풍 추우 흐르난 세월애 세티의 변
함을 ㅅㅅ라 ㅅㅅㅅㅅ아닌 간관아래 주인을 일코홀로잇든바 이에 회구를
마지 안이한 유지제씨의 열렬한 활동으로 사천오백원으로 작년에
수리공사에착수한바 이에 준공의 ㅅㅅㅅㅅ을 맞췄다느니 수축의 방법은
고유한 순구식으로 장식한 것은 물론이요 좌우로 홀로는련못을 비
경삼아 1년1차시 견우직녀 만나게 된다는 오작교와 주각은 금상첨
화로 호남의 유일한 기하야 동루상에서 증수기림식을 이행하는 동
시에 오일간을 계속한다더라(1931.06.05, 신한민보)
- 주 13) 남천(南川)이 한 줄기 굽어 돌면서 맑은 연못을 이룬 곳이 있었고, 연못가에는 돌다리가 있었는데, 이름을 '오작교'라 했다. 광한루는 다리를 굽어본 채로 솟아 있었는데, 채색된 기둥에는 구름이 걸리고 화려한 현판에는 해가 비쳤다. 두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니 동쪽으로는 푸른 산이 수없이 포개어져 있고, 계곡이 휘휘 굽어 돌며, 남쪽으로는 십 리에 걸

친 세상에 거마(車馬)가 끊임없이 왕래하고, 서쪽에 있는 발을 건너 올리면, 교외에 우거진 풀과 무성한 숲이 함께 한히 빛나고, 북쪽으로 난 창을 열면, 지는 저녁노을과 스러지는 연기가 교차하며 성곽에 비쳤다.

인용문헌

- (사)자연유산보존협회(2009). 광한루원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남원시.
- 강기욱(2014). 오늘의 한국.
- 강봉진(1971). 남원광한루실측조사. 대한건축학회지 40(-):44-48.
- 기쿠치 도시오(1995). 역사지리학방법론. 서울: 이화문화사.
- 김민주(2011). 조선시대 관아 누각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만(1982). 남원광한루의 오작교 복원에 관하여. 한국정원학회지 1(-):104-108.
- 김해경, 소현수(2012). 전통조경요소로써 도입된 학(鶴)과 원림문화. 전통조경학회지 20(3):57-67.
- 나카무라 카즈오, 이시이 히데야, 테즈카 아키라 저, 정암, 이용일, 성춘자 역(2001). 지역과 경관. 성남:선학사.
- 남원시(1999). 광한루예찬시선.
- 남원시(1752). 龍城誌.
- 남원시(1972). 增補 南原誌.
- 동아일보 1976년 4월 13일 기사.
- 류준경(2003). 광한루기의 문화론적 지향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9(-):235-264
- 문화재청(2000). 광한루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 문화재청(2008). 문화재청 고시문. 문화재청.
- 박연호(2005). 원림문학의 공간의 위상과 문화교육적 의미. 한국시가학회지. 17(-):79-108.
- 박영순(2009). 남원의 광한청허부. 국토연구. 334(-):149
- 백준철, 김학범(2011). 광한루원의 수목 및 구조물 정비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3):1-11
- 성현정(2001). 광한루기.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심우경, 박주성, 정용조(2010). 광한루원에 내재된 상상환경요소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1):38-48.
- 신한민보 1931년 6월 5일 기사.
- 안득수(2011). 광한루 편액시에 나타난 경관요소 분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198-206.
- 유옥례(2011). 용성지의 여류 누정시 연구. 고시가연구. 28(-):181-201.
- 이원호, 이종성, 김용기(2006). 석파정의 조영과 공간구성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21-31.
- 정훈(2008). 남원 광한루의 누정제형시 연구. 한국언어문학. 67(-):319-342.
- 한병욱(1997). 남원지방을 중심으로 한 성곽의 추적연구. 전주:신아출판사.
- 홍금수(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46-94.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다음 지도 <http://map.daum.net/>
- 디지털남원문화대전 <http://namwon.grandculture.net/>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한국고전번역DB <http://db.itkc.or.k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
- 한국문화신문 얼레빗 <http://koya.egreennews.com/>
- 한문화재한지킴이 <http://cafe.cha.go.kr/>
- 흔불문화관 <http://www.honbul.go.kr/>

원 고 접 수 일: 2014년 5월 09일

심 사 일: 2014년 5월 18일(1차)

2014년 5월 26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5월 26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